

방청객 “살인자” 외치자 전씨 39년전 독재자 눈빛 돌변

전두환 재판 방청객

11일 첫 재판을 마치고 재판정을 빠져나간 전두환은 “전두환 살인자”라고 외치는 한 방청객을 노려봤다. 앞치마를 한 자를 주장하며 종일 다소 ‘멍한 표정’을 지어오던 그는, 살인자라는 말에 39년 전 독재자의 눈빛으로 돌변했다.

이날 광주지 동구 광주지법 2층 201호실에서 5·18 이후 39년만에 피의자 전씨의 재판이 열렸다.

재판 시작 시간은 오후 2시30분이었지만, 방청객들은 1시간 반 전부터 재판정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법원관계자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방청객의 몸수색을 철저히 하는 등 재판을 대비했다.

일부 방청객들은 법원 경비원들에게 “어디에 앉아야 전씨를 잘 볼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또 다른 방청객들은 전씨를 비난하는 피켓을 법정까지 들고 왔다가 법정 경비원에게 뺏기기도 했다.

오후 2시 25분 검사 4명이 도착하고, 2분 뒤 전씨 변호인이 변호인석에 착석했다.

재판 시작 1분 전인 오후 2시29분 재판부가 들어온 뒤, 바로 이어 전씨가 부인 이순자와 함께 법정 들어섰다.

스트라이프 스타일의 검은색 정장에 밝은 노란색 넥타이를 맨 전씨는 경직된 표정으로 부속 없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외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 전씨는 안경을 울려 세우며 방청객부터 검사, 판사까지 쪽 훑어 봤다.

오후 2시 34분, 전씨는 생년월일과 주소를 물어보는 판사에게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잘 알아 들을 수 없다”고 말했고, 법정 경비원은 전씨에게 헤드셋을 줬다. 헤드셋을 착용한 전씨는 깎지 긴 수건을 앞치마에 모으고 판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사의 모두 진술이 시작되자 전씨는 헤드셋을 벗고 고개를 앞뒤로 흔들고 눈을 깜빡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들을 수 없다” 헤드셋 씌워줘

검찰 공소 배경 설명땀 집중

방청객 피켓 들고왔다 쫓겨나

변호인 진술땀 방청객서 울분

검사측이 대형 화면을 통해 모두 진술 내용을 설명하자, 전씨는 부인 이씨와 자리를 바꾸는 등 화면 가까이 앉았다.

전씨는 특히 검찰측이 공소 제기 배경을 설명할 때는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 화면에 집중했다. 전씨는 검찰측의 모두 진술이 길어지자 두 눈을 감고 검찰측 발언을 듣다가 고개를 좌측으로 기울이며 조는 모습도 보였다. 재판부는 조는 전씨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순자씨는 전씨가 조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석 책상 위에 있는 헤드셋을 들었다 놓아 소리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전씨를 깨우기도 했다.

변호인의 모두 진술도 시간이 길어지자 전씨는 또다시 꾸벅이며 졸다가 안경을 치켜 드는 모습을 반복했다. 변호인이 검사측의 피고사실을 전면부인하자 방청석 곳곳에서는 어이없다는 듯 한숨이 새어나오기도 했다.

전씨는 재판부가 변호인의 모두 진술 내용을 정리 요약하며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선 수긍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재판부의 정리가 끝나자 부인 이씨와 껏속말도 했다.

변호인의 모두 진술과 재판부의 정리를 듣고 있던 한 남성 방청객은 재판도중 갑자기 일어나 “변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외쳤다.

이에 장동혁 부장판사는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주장 할뿐”이라며 “재판부는 양쪽의 입장을 듣고 조정한다. 방청객이 하고 싶은 주장은 변호인이나 검사측에 제출하라”고 말했다.



11일 시민들이 형사재판을 마치고 광주지법을 빠져나가는 전두환씨의 차량을 둘러싸며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또 피고인의 다음 재판 출석 여부에 대해 변호인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을 하자 방청객에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지”, “다시는 안 오겠다는 말이지 않느냐”며 분노의 말을 이어갔다.

재판 종료 직전인 오후 3시43분 이순자씨는 “재판부에 드리는 글”이라며 서면을 재판부에게 제출했다. 오후 3시45분 재판이 끝나고 전씨와 이씨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자 방청석에서는 “전두환 살인

마”, “전두환 사죄하라” 등의 말이 터져 나왔다.

이 소리를 들은 전씨는 걸음을 멈추고 방청석을 쏘아본 뒤 무언가 할말이 있는 듯 입을 열었지만, 법원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말을 삼키고 다시 몸을 돌려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갔다.

39년간 기다렸던 첫 재판은 이렇게 끝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故 노무현 명예훼손 조현오 징역 8개월 실형 이승만·박정희 비판 김지영·주진우는 무죄

사자명예훼손 역대 판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수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 조현오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조현오 전 경찰장관의 사례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실 적시’에 의한 것도 처벌되는 일반 명예훼손죄와는 다르다.

조현오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자명명예훼손을 거론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또 학생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자기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

명”이라고 말해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진 최우원 전 부산대 철학과 교수는 1·2심에서 모두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주진우 기자의 ‘박정희 전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하려는 고의성이 없었으며 무죄가 선고됐다.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과 허위 여부가 무죄 판결의 주요 잣대가 된 것이다.

김지영·박정희 전 대통령을 각 각 비판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김지영 감독과 주진우 기자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지영 감독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를 비판한 다큐멘터리 ‘백년 전쟁’을 제작했다가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재판부는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지영 감독은 사자명예훼손으로 진행된 주진우 기자의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에 갔지만 뉘베르크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하려는 고의성이 없었으며 무죄가 선고됐다.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과 허위 여부가 무죄 판결의 주요 잣대가 된 것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두환에 엄정한 책임 물어야” vs “5·18 미진한 의혹 해소 계기 되길”

정치권 엇갈린 반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11일 광주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원이 엄격히 단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전두환 씨는 1980년 5월의 반인권적 범죄 행위에 대해 이제라도 참회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어떤 진정

성도 찾아볼 수 없는 전두환 씨에게 더 욱 추상 같은 단죄가 필요하다”며 “이제는 자신의 반성과 그에 책임을 져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두환 씨가 자신의 피로 물든인 광주 앞을 서게 됐다”며 “전 씨는 일말의 양심도 없는가. 전 씨가 광주의 수많은 시민을 무참히 학살했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전두환 씨 당성이 할 수 있는 것은 광주 영령과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더럽히고도 털끝만큼의 반성도 하지 않는 전두환의 반인륜 범죄에 대해 낱말이 진상을 밝히고 철저히 죄를 물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전두환 씨는 권력을 찬탈하고 군인을 앞세워 자신이 반대하는 시민을 학살한 반란수괴”라며 “무고한 국민을 살해한 최종 책임자로서 5·18 진실을 밝히는 데 겸허한 자세로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원론적인 논평을 냈다. 한국당 민경숙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오늘 시작된 전 대통령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세간의 미진한 의혹들이 역사와 국민 앞에 말끔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번 재판이 가진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재판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면서 지난 역사 앞에 겸손한 후대에 당당한 담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 기자 jpkpk@

HNT 하나투어

봄에가기 2019 딱 좋은!

여행백서

무안공항 출발 모여라!

광주일보 고객 예약자 대상 혜택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0대 교환권 제공(성인기준)

하나투어 프리미엄드샵 광주충장점

062) 228-1199

| 중국/홍콩/러시아 | 일본 | 동남아/대만 |
|--|--|---|
| 홍콩/마카오 664,900원~ 홍콩/마카오 4일, 5일 현지여행 가이드+기사경비 \$30~ 선택여행 있음 운항일 화,일요일244일 목요일345일 ※ 3월31일 이후~ #무안-마카오홍콩(마카오출발) | 도쿄 799,300원~ 도쿄 4일 현지여행 가이드+기사경비 3,000엔 선택여행 있음 운항일 매일출발344일 ※ 3월31일 이후~ #무안-나리타(기타큐슈) | 보라카이 580,000원~ 보라카이 4일, 5일, 아질라 현지여행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여행 있음 운항일 수요일344일 토요일445일 ※ 3월20일 이후~ #세일보트도착일차 |
| 블라디보스톡 649,000원~ 블라디보스톡 4일, 5일 현지여행 가이드+기사경비 \$30~ 선택여행 있음 운항일 월,수,토요일 244일 금요일 345일 ※ 4월 1일 이후~ #반야월7박8일(기타큐슈출발) | 오사카 870,000원~ 오사카/고토나라 4일 현지여행 가이드+기사경비 없음 선택여행 있음 운항일 월,목,토,일요일 344일 #일본관광객 #다문화관광객 | 세부 548,000원~ 세부 5일, 6일, 슬라에리조트 현지여행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여행 있음 운항일 화,수,목,토요일(3월30일) 수,목요일 344일 토요일(4월5일~5월1일) #해왕+관광 출가 #가라오케의 보물 |
| 상해 329,000원~ 상해/항주/주자 4일, 5일 현지여행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여행 있음 운항일 수요일 344일 토요일 445일 #상해/항주/주자 #비자 #유니클레 | 기타큐슈 659,000원~ 기타큐슈/유후인벳부 4일, 5일 현지여행 가이드+기사경비 3,000엔 선택여행 있음 운항일 금,일요일 244일 화요일 345일 (3월5일~4월28일) #지쿠호산 #기타큐슈 | 대만 702,000원~ 대만/지우펀/야류 4일 현지여행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여행 있음 운항일 매일출발 344일 #타이베이,펑거리,타이베이,타이베이 |
| 상해/장가계 1,190,000원~ 상해/장가계/원가계 4일, 5일 현지여행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여행 있음 운항일 수요일 344일 토요일 445일 #한복여행 #상해/장가계/원가계 | 모미타 689,000원~ 모미타/유후인벳부 3일, 4일 현지여행 가이드+기사경비 없음 선택여행 있음 운항일 화,목요일 244일 토요일 344일 #모미타 #유후인벳부 | 대만 621,000원~ 대만/타이베이 5일, 6일 현지여행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여행 있음 운항일 수,목요일 344일 토요일 445일 #대만 #타이베이 #대만/타이베이 |
| 코타키나발루 708,000원~ 코타 5일, 6일, 시내 존룩 현지여행 가이드+기사경비 \$30~ 선택여행 있음 운항일 수요일 344일 토요일 445일 #코타키나발루 #시내 존룩 | | |

※ 항공사 사정에 따라 운항일 변경 가능 있습니다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